

중소기업

# IBK CEO REPORT

2010.08 | VOL.66

## 이슈분석

- I.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점검
- II. 하반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 III. 201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 IV. 월간 주요 경제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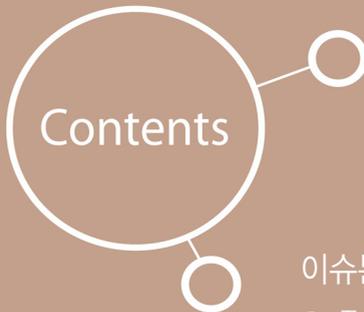
## 경제동향

- I. 해외경제
- II. 국내경제
- III. 중소기업
- IV. 금융시장
- V. 자금흐름

## CEO 라운지

- I. 최근 정부의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 노력에 즈음하여
- II. 서울포럼
- III. 녹색인증제
- IV. 창조적 영감에 목마른 그대, 오리진(Origin)이 되라(1)
- V. 다시 배워보는 잇솔질법

## 경제지표



# Contents

## 이슈분석 ... 02

- I.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점검
- II. 하반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 III. 201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 IV. 월간 주요 경제이슈

## 경제동향 ... 14

- I. 해외경제
- II. 국내경제
- III. 중소기업
- IV. 금융시장
- V. 자금흐름

## CEO라운지 ... 20

- I. 최근 정부의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 노력에 즈음하여
- II. 서울포럼
- III. 녹색인증제
- IV. 창조적 영감에 목마른 그대, 오리진(Origin)이 되라(I)
- V. 다시 배워보는 잇솔질법

## 경제지표 ... 32

## I.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점검

### 최근 주요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위기는 여전하다는 불안감 확산

- EU의 재정위기 지속과 함께 미국의 소비 및 주택경기 악화,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에 대한 의문 제기
  - 재정위기를 감수한 과감한 재정지출과 자산버블 우려에도 저금리 지속, 양적완화 등의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지만, 다시금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에 대한 불안감 확산
- 따라서 미국·EU·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

###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EU의 재정위기

- EU의 재정위기는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위축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
  - 낮은 제조업 비중과 높은 사회보장 지출, 통화정책 구사의 어려움, 얽혀있는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EU의 재정위기는 해결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축으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은 불가피
- EU는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숨겨진 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EU는 재정위기보다 금융권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언급
  - EU 금융권의 부실자산 규모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아 부실자산 처리기회를 상실한 채 점차 만기에 다다르고 있어 금융권의 지불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언급
  - 뉴욕대 루비니 교수 또한 EU 정부가 국가부채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뒷받침해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실은행을 구제하기도 어렵고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주장
- 또한, EU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유럽의 9개 주요 은행 중 이미 부실기관으로 판정된 7개 은행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EU는 유럽 전체 은행자산의 65%를 차지하는 91개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 중소형 은행 7개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
  - 5개의 스페인 저축은행을 포함 독일의 지역은행인 HRE와 그리스의 ATE은행 등 7개 은행은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인식되었던 금융기관
  - 당초 10~20개 은행의 불합격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침으로써 EU 금융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할 전망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독일마저 긴축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EU경제의 버팀목이 될 구심점이 없는 상황
  - 조지 소로스는 독일의 긴축정책이 주변 유럽국들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이로 인해 유로화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 예상보다 크게 꺾인 미국경제

- 견고한 경기회복세를 자랑하던 미국이 최근 들어 고용과 주택경기지표가 하락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 내포
  -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생력이 예상보다 훨씬 미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과 주택경기의 하락이 바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
  - 6월 중 비농업부분 고용은 인구조사 요원의 해고로 정부부문 고용이 감소하면서 '10년 들어 처음으로 전월대비 12만 5천명 감소
    - 4월 이후 민간부문의 고용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점과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65만 2천명)하기 시작한 것은 어려운 고용상황을 반영
  - 5월 주택시장도 신규주택판매 및 기존주택판매의 감소세 전환 등 세제지원 종료 이후 조정 및 재위축되는 양상
    - 5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대비 32.7% 줄어든 30만호(시장예상치 41만호)로 '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 고용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세제지원 중단은 곧바로 주택경기 하락으로 연결되고 소비위축으로 직결
- 긴축 지속에 따른 중국 및 유로존의 경기둔화로 미국 수출 모멘텀도 점차 약화될 조짐
  - 6월 ISM 제조업지수가 시장예상치(59.0)를 하회한 56.2로 나타나 소비와 수출의 모멘텀 약화가 제조업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양상
    - 미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EU의 경기둔화 가능성 또한 불안요인
-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감세정책 없이는 자생적으로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경기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이 미국경제의 가장 큰 우려요인

### 점점 고민이 깊어져가는 중국

- 중국의 제조업경기 둔화 움직임은 미국, EU의 경기둔화와 중국정부의 긴축기조가 맞물린 결과

- 6월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52.1로 전월의 53.9보다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제조업경기 둔화 우려를 고조시킴
  - 5월 경기선행지수도 103.4로 전월대비 0.92p 하락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하반기 성장 둔화를 예고

## ■ 하지만, 중국경제의 진짜 고민은 원자바오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정책이 점점 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점임

-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해 경기지표의 둔화 속에서 거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
- 수출둔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내수확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건축과 확장의 선택이 어려운 상황
  - 위안화 절상과 유럽의 재정위기, 수출부가가치세 환급폐지 등으로 수출둔화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
  - 반면, 최근 임금인상과 위안화 절상으로 소비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소비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그러나,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미국과 EU의 경기둔화시 중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 ■ 제2의 그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일본

### ■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표방했던 간 나오토 총리의 참의원 선거 참패는 일본의 암울한 미래를 짐작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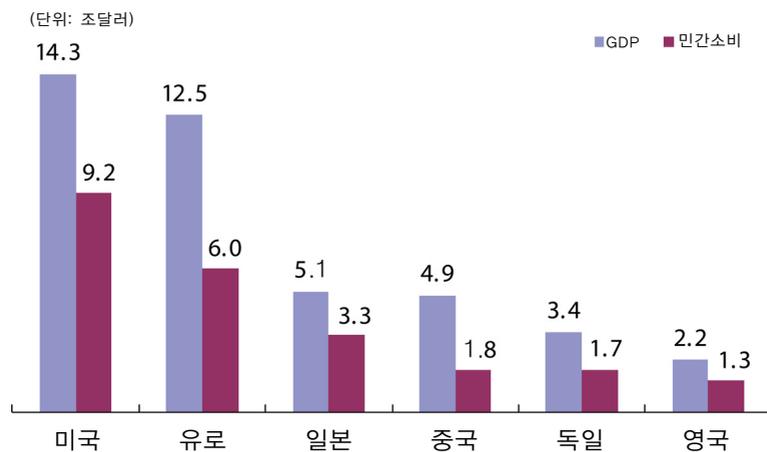
- 간 나오토 총리는 “이대로 가면 2~3년 안에 일본은 제2의 그리스가 되고 말 것이다”라며 일본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지적하고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 '10.3월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882조 9천억엔으로 GDP대비 227.1%에 달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은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가 오는 '15년에는 250%, '20년이면 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제22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재정안정을 위한 마지막 희망인 세제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
  - 민주당의 참패는 유권자들이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율 인상 추진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킨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
  -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10% 인상론’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사항에 불과하며, 국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적어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

- 재정건전화 쉽지는 않은 일본의 경우 향후 국채시장의 위기로 국가파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일본 국채의 11.6%를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금이 국채를 순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채로 투자처를 옮기는 등 더 이상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음
  - 일본 국채의 95.4%가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채시장이 위기에 빠질 경우 모든 경제주체가 동시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

**G3의 경기회복세 지속 여부가 한국경제의 회복 강도를 좌우할 전망**

- 세계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G3,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회복없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논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 세계GDP대비 비중(% , '09년) : 미국(24.6), 중국(8.5), EU(28.4), G3(61.5)
- 특히,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의 소비 감소분을 메워줄 수 있는 시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함
  -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세계 소비시장으로 거듭 나기에는 부족한 상황
  - '09년 기준 중국의 소비는 미국의 19%, 유로의 29%에 불과
-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미국, EU와 함께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상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

**주요국 GDP 및 민간소비**



주 : 2009년 기준, 자료 :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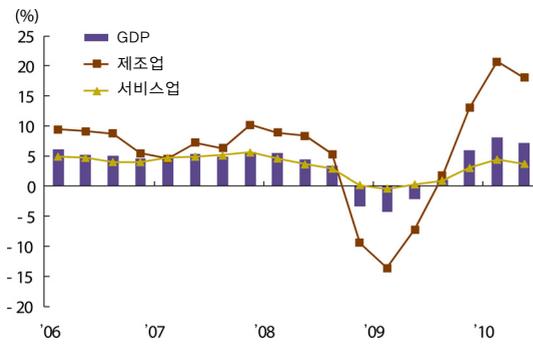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경재 수석연구원 (02-729-6522)

## II. 하반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 견조한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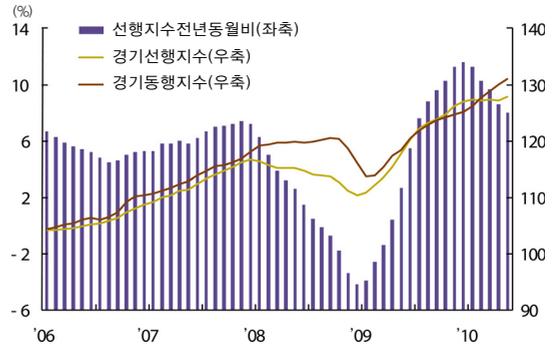
- 2/4분기 경제성장률이 7.2%(전년동기대비, 속보치)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정점 논란 및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도 점증하는 상황
  - 일반기계, 금속제품, 자동차 등 수출업종이 2/4분기 성장을 이끈 만큼, 수출둔화시 성장률 둔화 또한 불가피
  - 경기동행지수는 '09.3월 이후 '10.5월까지 14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반해, 선행지수는 '10.1월 상승세가 꺾인 이후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GDP 성장률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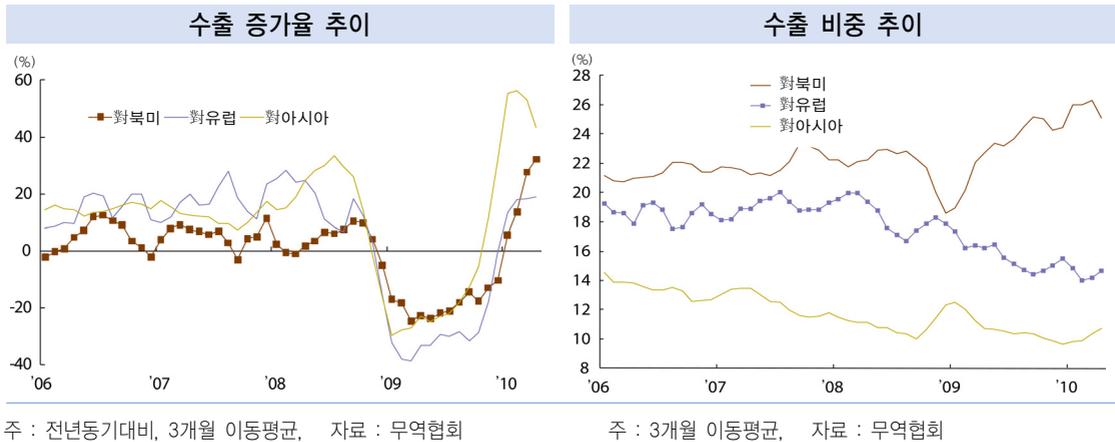
주 : 2005=100, 자료 : 한국은행

### 이 시점에서 하반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을 살펴볼 필요

- 하반기 한국경제는 G3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및 재정지출 여력의 축소, 불안한 물가,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G3(미국EU-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둔화 가능성

- G3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을 감안할 때, G3의 경기둔화는 한국수출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수출은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나, 향후 EU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
  - G3의 소비둔화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과 EU의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감소도 한국의 수출에는 부정적



### 차이완 시대의 개막에 따른 對중국 경쟁력 약화

#### ■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 차이완 시대의 본격 개막을 예고

- ECFA는 경기침체를 탈출하려는 대만의 실리와 중화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결합되어 5개월 만에 신속하게 타결
  - 북미, EU에 이어 GDP규모 5.3조달러의 3번째 거대시장 출현
- 중국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등 5개 분야에서 539개 상품품목과 금융, 전문직 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
  - 539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對중국 수출액은 138억 3,800만달러('09년 기준)로 전체 對중국 수출총액의 16.1% 차지

#### ■ 한국의 주력 수출품(IT, 화학, 자동차 부품 등)이 대만과의 경합도가 높아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

- '09년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화공제품, 전화기 및 기타 송수신 기기 부품 등 14개가 중복
  - 상기 품목들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제품과 전자 집적회로, LCD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 한국기업은 원가절감 및 현지화 전략 등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나, 당장 활용 가능한 실행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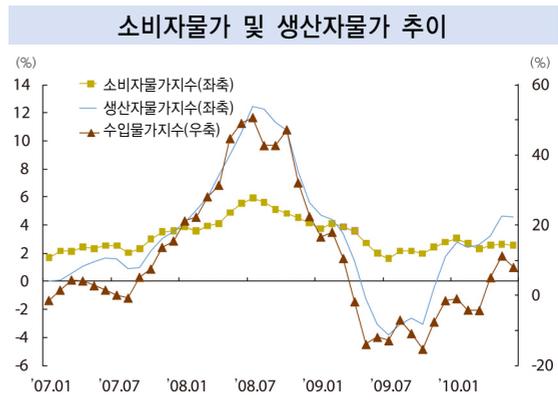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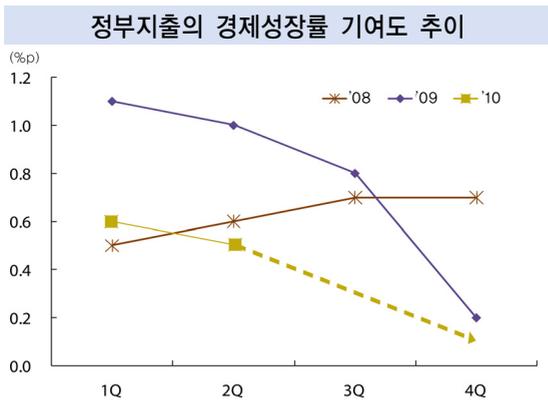
### 재정지출 여력의 축소 및 물가 불안

#### ■ 상반기 중 정부지출의 조기집행과 세계적인 재정건전화 움직임 등으로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여력의 축소가 불가피

- 한국의 재정적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결코 안심할 수 없음
  - 명목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 1.24('07년) → -1.00('08년) → -4.07('09년) → -7.35('10.1/4분기) (관리대상수지 기준)
- 예상 밖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의 자생력이 견고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상존함을 인식해야 함

**■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및 국제 원자재 가격불안, 과도한 시중 유동성 등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도시가스 요금(원가연동제 재시행), 전기요금(요금체계 개편) 등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
  - 낮은 기준금리와 시중에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도 언제 물가 상승을 부추길지 모르는 불안요인
- 중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위안화 절상 가능성 또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주 : 점선은 하락추세를 의미,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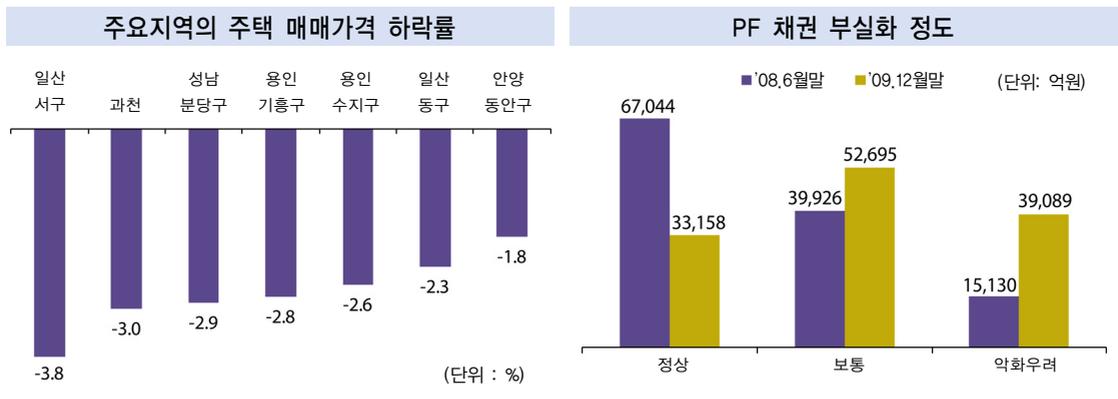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

**■ 예상치 못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

- 사상 최저금리의 유지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빠른 경기회복세와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상황
-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원인으로 공급과잉 및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

■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가계의 자산 감소 및 PF 대출 부실화, 건설사 부도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큼

-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대출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계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
-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건설사 및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및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이어질 위험성
  - 반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가 소비위축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상존



주 : '09년말 대비 '10년 상반기 하락률, 자료 : 국민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하반기 한국경제의 경기둔화 리스크는 상존

■ 지금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국내외 여건이 상이할 경우 경기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

- 국내여건은 물가 상승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음
- 다만 G3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대외여건은 여전히 저금리 기조 유지에 힘이 실리는 상황

■ 하반기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경재 수석연구원 (02-729-6522)

### Ⅲ. 2010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

#### 2010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는 상반기 대비 둔화될 전망

- '1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은 24.0%로 조사되어 상반기 29.1%(잠정치)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10년 상반기 설비투자 실시 업체비율 실적치(29.1%)는 전망치(25.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
    - 설비투자는 경기 회복 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응답자는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
    - 상반기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들은 투자여력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 잠정치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
  - 따라서 하반기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인 24.0%는 상반기 실적 대비 낮은 수치이나 우려할 수준은 아님
- 규모별 설비투자 : 중기업(35.0%)이 소기업(20.9%)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할 전망
- 산업별 설비투자 : 중화학공업(26.0%)이 경공업(20.6%)보다 더 높은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형태별 설비투자 : 기초소재형 제조업(26.0)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전망
  - 반면, 생활관련형 제조업의 투자는 21.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업종별 설비투자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설비투자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전망
  - 대부분 업종의 제조업체들은 상반기에 투자여력 확보에 따른 설비투자를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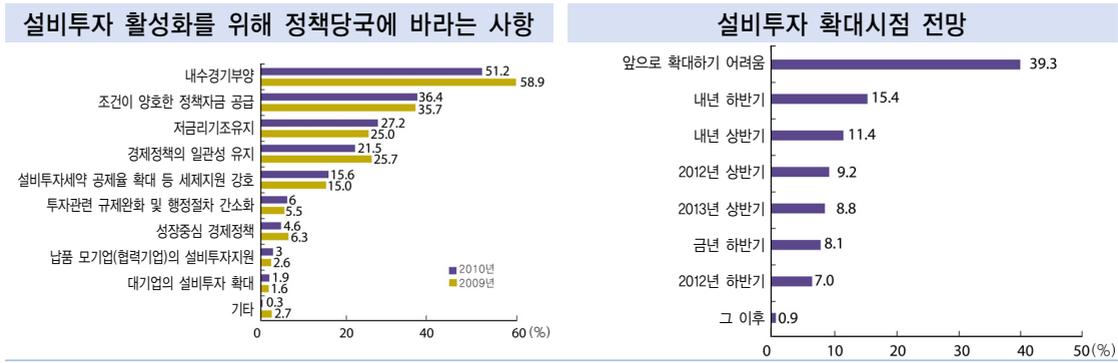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 추이

(%, %p)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전망)			차이 (2010년 -2009년)
								상반기 (잠정치)	하반기 (추정치)	년간	
전	체	40.1	39.0	39.5	41.4	42.3	28.6	29.1	24.0	34.2	5.6
규모별	소 기 업	35.1	34.8	35.3	38.0	36.4	24.9	26.0	20.9	31.3	6.4
	중 기 업	69.2	69.3	71.9	68.6	69.2	41.5	40.0	35.0	44.5	3.0
산업별	경 공 업	34.3	34.3	33.7	35.9	36.8	27.3	25.4	20.6	31.2	3.9
	중화학공업	45.0	42.2	43.7	45.2	45.8	29.4	31.3	26.0	36.0	6.6
형태별	기공조립형	41.9	38.9	44.1	44.6	45.2	26.8	30.3	25.0	34.7	7.9
	기초소재형	43.4	46.7	41.3	45.3	43.3	32.0	31.4	26.0	36.7	4.7
	생활관련형	33.3	32.4	32.9	34.3	37.2	28.4	25.5	21.0	31.4	3.0

자료 : IBK경제연구소

- '10년 상반기 설비투자를 실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사유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조사 대비 '수출경기호전 기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
  - 현재 생산능력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수출경기(1.9%→19.8%)와 내수경기호전 기대(5.9%→10.7%)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은 미실시 사유로 '기존 설비만으로 충분', '국내수요 불투명', '수익성 저하' 등의 순으로 응답
  - 수요부족, 수익성 저하 등의 비율은 상반기 대비 감소
-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 업체들의 자금조달 방법은 93.9%가 내부자금을, 20.8%가 차입금을 이용할 것으로 응답
  -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계속되는 것은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
  - 상반기 경기 호전으로 인한 투자여력 확보로 차입금을 사용할 비율은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업체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으로는 '내수경기 부양',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 '저금리기조 유지' 등의 순으로 응답
  - 경기호전으로 인해 '내수경기 부양'을 희망사항으로 응답한 업체 비율은 상반기 대비 7.7%p 하락한 51.2%를 기록한 반면, 금리상승을 우려하여 '저금리기조 유지'를 지적한 업체의 비율은 2.2%p 상승한 27.2%로 조사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시점에 대해 39.3%가 앞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응답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업체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 : 복수응답, 자료 : IBK경제연구소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민재 선임연구원 (02-729-7374)

## IV. 월간 주요 경제이슈

「월간 주요 경제이슈」는 최근 한 달 동안 언론매체에 보도된 주요 경제기사를 이슈별로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임

### ■ G2(미국·중국)의 성장을 둔화, 양국의 서로 다른 속사정

#### ■ 중국은 완만해진 성장세로 경기과열에 대한 걱정을 일부분 해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1/4분기 11.9%에서 2/4분기 10.3%로 감소, 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대출·부동산 억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됨
- 성장을 둔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산업에 향후 10년간 5조 위안(약 890조원)의 투자 계획안을 발표
  - 환율개혁 한 달 후인 현재 위안화 절상은 무난하게 진행 중이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오름세고 근로자임금 역시 상승 중이라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할 듯

#### ■ 반면 미국은 각종 지표들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우려를 좀처럼 떨치지 못하는 모습

- 7월 중순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2~3.7%에서 3.0~3.5%로 하향 조정하고, 경제 전망 악화시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 7월 주택시장지수 15개월來 최저치 기록, 고소득층의 소비급감, 고용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

### ■ 유럽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유럽 9개 은행에 대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7개 은행이 불합격 했다고 23일 발표

- 불합격 은행으로는 그리스의 ATE와 독일의 HRE가 포함되었고 특히 스페인은 5개 은행이 통과하지 못해 자본 조달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드러남
- 정상적(benchmark), 극단적(adverse), 국가충격(sovareign shock) 등 3가지 시나리오 아래 한 번이라도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sup>\*\*</sup>이 6%에 미달한 경우 탈락에 해당
  - ※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기자본에서 부채성격을 지닌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영구적 성격을 지닌 기본자본만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값
- 대출 담보물에 대한 할인율인 헤어컷<sup>\*\*</sup>은 그리스 국채의 경우 23.1%로 적용, 포르투갈은 14.0%, 스페인은 12.3%, 독일은 4.6%로 회원국별로 각각 산정
  - ※ 헤어컷(평가절하) : 가격이 하락한 유가증권의 장부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가치는 낮게 평가됨

■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과의 엄정성에 대해 의문 제기

- 마켓워치는 CEBS가 유로존 국채 보유에 따른 손실 추정치를 그리스 17%, 스페인 3%, 독일 0%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했다며 이번 테스트가 ‘숨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
-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최대 위험 시나리오인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을 배제한 점, 은행의 대출 장부가 아닌 거래(Trading) 장부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꼽으며 결과에 의문을 제기
  - ※ 대출 장부는 은행의 대고객관련 포지션을, 거래 장부는 영업 매매 포지션을 관리하는 장부

■ 美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향후 영향은

- 대공황 이후 가장 대대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의 강화,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 부실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됨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
  - 신용카드,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불공정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 신설
  - 신용디폴트스왑(CDS)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제 실시로 투명성과 책임 강화

■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 연기

- 22일로 예정되어있던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여전히 계속될 조짐
-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주원인
  - 8월 중으로 연기된 정부의 대책안에는 서민 실수요자를 고려해 DTI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 존재
  - 시장의 매수·매도거래가 모두 위축된 상태이며, 현 거주주택의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주택가격평가지수<sup>※</sup>는 '10년 3/4분기 82.8을 기록해 가격하락 체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주택가격평가지수는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인식함을 뜻함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권나은 연구원 (02-729-6897)

## I. 해외경제

###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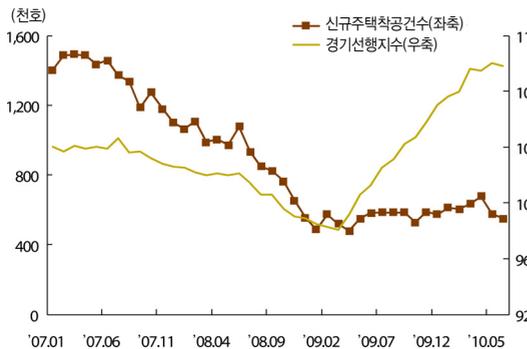
#### ■ 미국은 소비둔화 및 주택경기 하락, 경기선행지수 하락 전환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 확산

- 6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5% 감소해 '08.12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7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대비 9.5p나 급락해 '09.8월 이후 최저치인 66.5를 기록하면서 소비둔화 우려를 높임
- 6월 신규주택착공이 전월대비 5.0% 감소한 54.9만호를 기록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5월 수치는 전월대비 10.0% 감소에서 14.9% 급감으로 하향 수정
  - 6월 신규주택착공 건수는 주택경기가 호황을 보였던 '05년의 월평균 207.3만호에 비해서는 무려 73.5%나 급감한 수준
- 6월 경기선행지수도 주택허가건수 감소 및 주가 하락, 제조업 근로시간 감소 등의 영향으로 14개월 만에 하락(전월대비 -0.2%)해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증대

#### ■ 중국도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등의 증가율이 둔화되며,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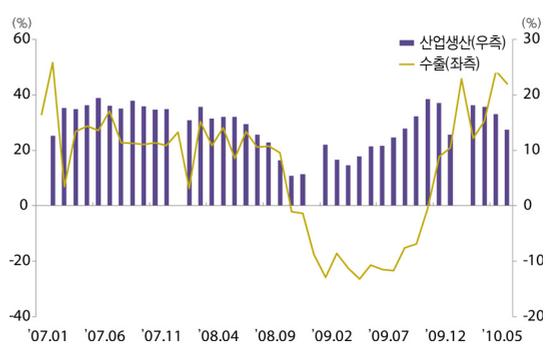
- 6월 산업생산은 시장예상(15.3%)을 큰 폭으로 하회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에 그쳐 '09.9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 6월 소매판매 역시 시장예상(18.8%)을 소폭 하회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
- 6월 수출은 EU(43.2% 증가)와 미국(43.8% 증가)으로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374억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
  - 하반기에는 위안화 절상, 수출환급세 폐지, 선진국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신규주택착공 건수 및 경기선행지수



자료 : Datasteam

중국의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Datastream

## II. 국내경제

###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및 고용불안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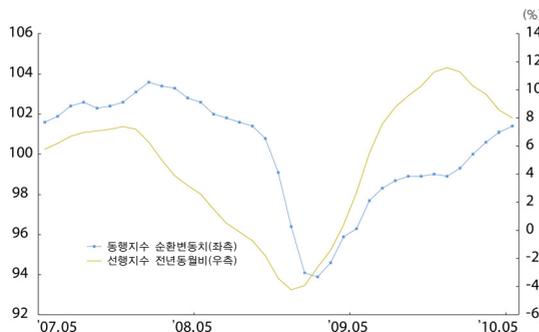
####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둔화 가능성도 점증

-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3.9% 증가
-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8%로 전월(82.2%)에 비해 0.6%p 상승했는데, 이는 '95.6월(83.2%) 이후 14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6월 수출이 사상최고치(426.5억달러)를 기록한데 힘입어 무역수지도 사상최대치인 74.7억불 흑자 시현
- 5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100 이상으로 경기확장세가 지속
- 하지만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전월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하며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도 점증

#### ■ 현재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의 오름세와 청년실업률 상승을 감안할 때, 불안감은 지속

- 6월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적이나,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4.6%, 8.0%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에 상승압력을 가하는 중
- 6월 실업률은 3%대가 유지되었지만 청년실업률이 8.3%로 큰 폭 상승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추이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Ⅲ.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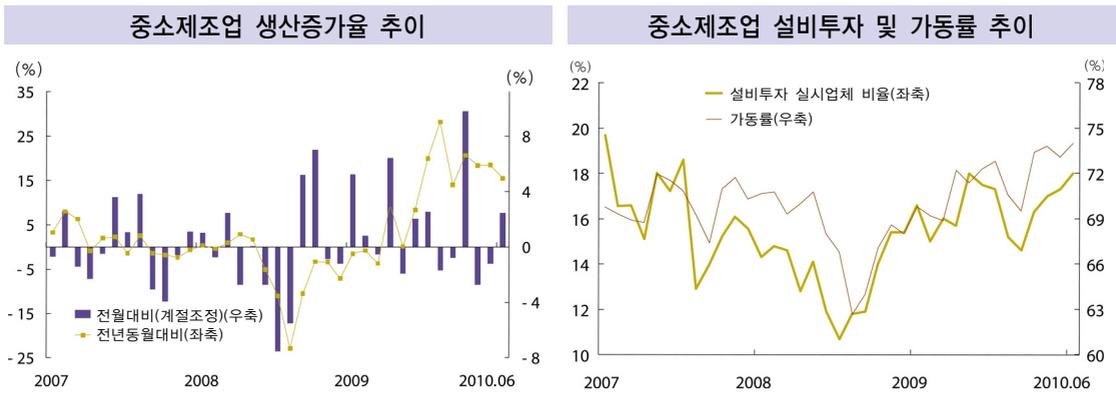
중소제조업 생산은 증가하였고 경영상황도 양호하지만 개선세는 소폭 둔화

■ 6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5% 증가한 123.1을 기록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5.5% 증가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의 호조에 힘입어 전월대비 2.5%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15.5%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증가세는 점차 감소

■ 가동률은 74.0%로 '06.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도 금융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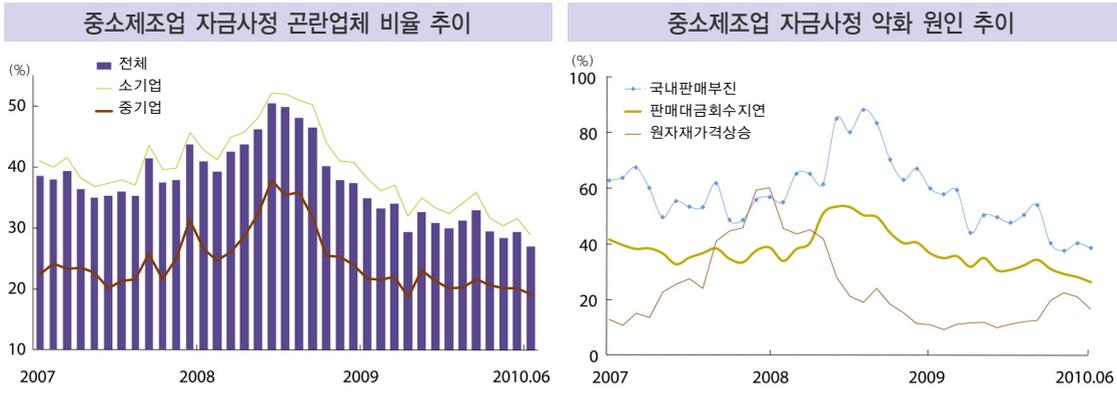
-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0.9%p 상승한 74.0%를 기록
-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전월대비 0.7%p 상승한 18.0%를 기록



자료 : IBK경제연구소

■ 생산, 수주 및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었으며 자금사정 또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개선

-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은 26.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4%p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자금사정 곤란 사유인 국내판매부진, 판매대금회수지연, 원자재가격상승에 대한 응답비율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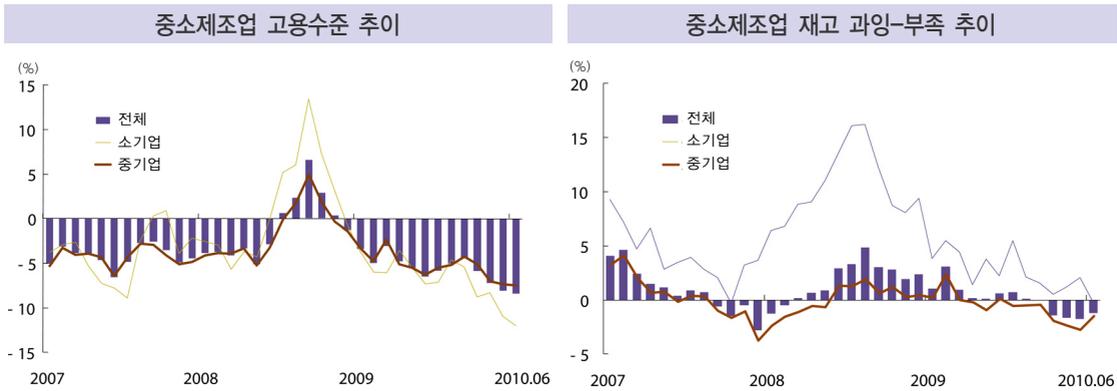
자료 : IBK경제연구소

■ 그러나 중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 요인이 감소하였고, 재고 감소세가 소폭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 경기둔화 요인이 나타남

- 생산능력 대비 종사자수 부족업체 비율의 감소로 종사자수 과잉-부족 차는 전월보다 상승 (-8.4%p → -7.9%p)
- 재고 과잉업체 비율은 증가하고 부족업체 비율은 감소하여 과잉-부족 차는 전월에 비해 상승 (-1.7%p → -1.2%p)

■ 중소기업 경기는 꾸준한 경기개선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및 세계경제 회복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요인이 향후 중소기업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 7월 0.25%p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이자 추가 부담은 연간 약 7,595억원으로 추산(IBK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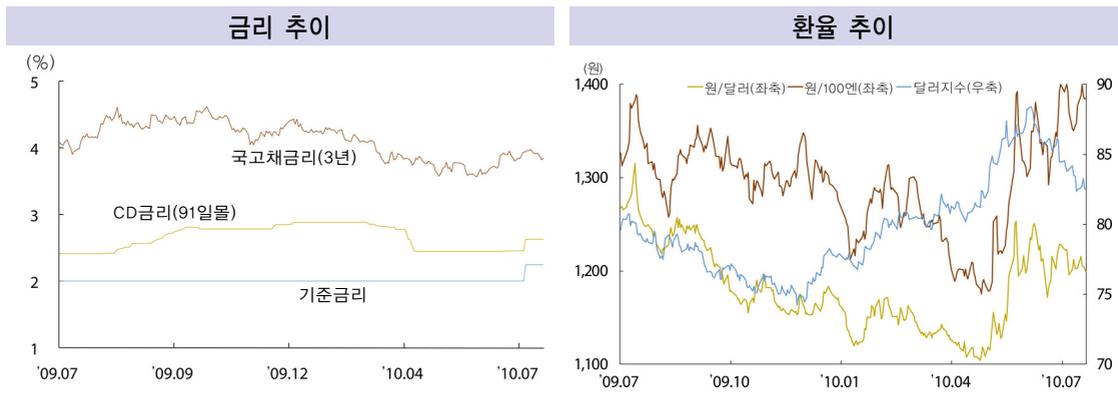
자료 : IBK경제연구소

## IV. 금융시장

### 17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 7.9일 기준금리 인상(2.00% → 2.25%)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였고, 제한적이지만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를 보일 전망
  -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버냉키 美 FRB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7.21일)를 통해 미국의 경제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 유럽은행감독위원회가 91개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7개 은행만이 불합격한 것으로 발표(7.23일)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
  -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금리의 등락이 거듭되겠지만 기준금리가 인상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전망
- 금리 추가인상 예상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 미국·EU 대비 탄탄한 펀더멘털로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1,172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주택지표의 부진, 중국 산업생산 감소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1,200원대에 진입하였으며, 7월 금통위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재차 1,100원대에 진입하였으나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
- 미국 경제지표 악화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불확실성 잔존으로 인한 유로화 약세 전환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상존
- 한편, 미국의 경기회복 지원 기대로 엔화가 '09.4월 이후 최고 강세를 보였으나, 일본정부가 85엔대 선에서 강력개입을 시사하여 엔고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V. 자금흐름

### 6월 중 전체 수신 및 대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

- 6월 중 은행수신은 예금금리 인상 등에 힘입은 정기에금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기말 부채비율관리 및 월말 세금납부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

○ 기업의 MMF 자금 인출,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형펀드 환매 확대, 금리상승(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채권형펀드 감소 등으로 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의 감소로 전환

####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10.6월말 잔액
	연중	6월	연중 <sup>3)</sup>	6월	4월	5월	6월	
은행 수신	104.3	5.2	54,8(72.6)	7.7	-3.4	18.6	5.4	1,044.6
(수시입출식 <sup>1)</sup> )	11.8	5.4	41.1	8.3	0.7	10.4	5.7	298.0
(정기에금)	63.0	-3.6	39.1	-3.7	8.7	12.4	8.4	448.5
(CD)	8.2	3.1	-1.9	2.3	-8.6	-6.8	-7.0	64.7
(은행채)	31.2	-0.0	-19.3(-1.5)	2.1	-2.2	2.4	-0.9	173.6
자산운용사 수신	63.0	-1.0	-27.6	-11.5	-3.0	4.2	-9.5	334.2
MMF	42.2	-4.7	-17.2	-12.7	-1.6	1.8	-4.2	78.2
주식형	23.9	1.7	-14.0	-0.8	-5.5	1.5	0.0	116.3
채권형	-10.5	-0.9	15.8	2.1	3.2	0.4	-2.6	49.9
혼합형	-5.4	0.8	-7.8	-0.3	1.0	0.1	-1.9	32.4
신종펀드 <sup>2)</sup> )	12.9	2.1	-4.4	0.2	-0.1	0.4	-0.5	57.3
증권사 CMA	3.5	0.1	7.5	-0.1	2.5	-1.3	1.3	41.3

주 : 1) 실제요구불예금 포함 2)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3) ( )내는 산금채 및 은행채 이관분 포함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금융투자협회

-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금리수준과 입주물량 증가로 확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은 전월 특이요인(공모주 청약, 가정의 달)이 사라지면서 소폭 감소로 전환

○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을 앞둔 보수적 대출태도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의 계절요인으로 대기업 대출도 감소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동향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10.6월말 잔액
	연중	6월	연중	6월	4월	5월	6월	
기업대출 <sup>1)</sup> )	78.3	8.0	14.5	-1.6	3.5	2.1	-1.9	518.0
(대기업)	30.3	1.7	-5.2	-2.5	2.8	0.3	-0.4	83.1
(중소기업)	48.0	6.3	19.7	0.9	0.7	1.9	-1.6	434.9
기업직접조달 <sup>2)</sup> )	25.9	-0.7	31.8	-0.4	4.0	-0.1	1.9	-
가계대출 <sup>3)</sup> )	25.0	3.1	20.1	4.0	1.7	4.4	2.5	417.9
(주택담보대출)	18.1	1.3	25.4	3.5	1.8	1.7	2.5	273.2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1.8	-4.5	0.5	0.0	2.7	-0.0	143.7

주 : 1)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포함) 2) 직접조달 = CP순발행+회사채 순발행+주식발행 3) 신탁포함, 증별대출은 신탁 제외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 I. 최근 정부의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 노력에 즈음하여

### 최근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과 상생협력 대책 마련에 고심

- 최근李大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7.19),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현장방문(7.22)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마련
  - 정운찬 국무총리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7.20)하고 중소기업의 납품 애로, 제품구매 확대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 정부 고위관리자의 대기업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부터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생 및 협력 문화 정착을 강조

### IBK경제연구소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학계, 언론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

- 기업은행의 IBK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이슈를 중심으로 학계, 언론 등 유관기관에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 개선안을 제시
  - ‘대·중소기업 불공정 실태와 과제’(4월) 및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 과제’(6월) 등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슈 제기
    - 위의 내용은 IBK중소기업 CEO REPORT 4월호에 ‘위기의 중소기업 :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방안’의 제목으로 게재됨
  - ‘일자리 창출 성장정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포럼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 과제’를 발표(10.6.8)
    - 또한 해당 이슈에 대해 언론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유

### 대기업의 상생협력 분위기, 중소기업 동반성장론 반향

-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
  - KT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3정책’을 제시하였고, 포스코는 2~4차 협력 중소기업도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
    - 삼성전자는 감사팀이 5년 만에 상생협력센터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단지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 하에 기업 스스로 공정한 상거래 기반을 확립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

내용문의 : 중소기업팀 이성룡 연구위원 (02-729-6867)

## II. 서울포럼

‘2010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후 : 글로벌 경제 및 기술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을 재창조한다’라는 주제로 7.7일~8일까지 개최되었던 서울포럼을 요약한 내용임

### IT 아이콘의 미래전망 : 스마트폰, 구글을 넘어서

**발표자** 스티브 워즈니악(스티브 잡스와 더불어 애플의 공동창업자(1975)  
최초 개인용 PC인 Apple I, Apple II, 매킨토시 개발)

#### ■ 감성시대 도래 및 인간 감성을 자극하는 IT가 중요

- 미래에는 PC가 커피를 끓이고 인간 감성을 자극하는 교향곡을 작곡할 정도로 ‘인간화’된 정보 기술(IT)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
- 온라인 교육에서의 프리젠테이션도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배우는 학생들과 교감이 필요한 커넥션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인간적인 컴퓨터가 생산된다면 학생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가능
- 기술발전의 지향점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 기술의 부작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술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줄 것
  - 결국 기술자란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사람
- 기술력 향상과 시장점유율에 몰두하기보다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낄지가 더 중요하며, 기술적인 우수성 뿐만 아니라 한차원 높은 새로운 접근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

#### ■ 시사점

- 이제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견지해온 ‘발 빠른 2인자(Fast follower) 전략’을 버리고 ‘진정한 1인자(First mover)’로 시장을 선도해야 할 위치
  - IT는 결국 현실세계를 반영한 가상세계이므로 소비자의 수요를 보다 쉽게 소화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
  - 2인자는 앞선 자의 기술을 모방하지만 1인자는 소비자의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읽어내야 하며, IT는 결국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한발 앞서 판단해야 할 필요

## 기후변화, 에너지 산업 (Panel Discussion)

**패널** 크리스 플래빈(Worldwatch 대표), 유상희(포스코경영연구소 전무),  
김상협(청와대 미래전략비서관), 폴 디컬슨(미국 Haynes & Boone LLP 파트너)

### ■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야 글로벌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

- 세계 각국이 고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 에너지 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
  - '30년까지 그린에너지 분야에 6,300억 달러 투자와 2천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 ※ 100만 달러 투자시 기존 에너지는 11.5개, 녹색은 21.5개의 일자리 창출
-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위기 시에도 녹색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
  - 정부의 지원여부가 시장 성공의 주요인
  - ※ 한국의 모든 발전소는 '12년까지 2%, '20년까지는 10%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 ■ 각국 상황에 맞는 저탄소 정책을 준비하되 세계적으로 그 방향성은 일치

- 증세 목적에서 출발해서는 안되고 정책의 정당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은 탄소가격의 적정한 책정문제가 해결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
  - 한편 크리스 플래빈 월드와치 대표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 보다는 탄소세금제도 도입이 단순하면서도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
- 긍정적 미래를 위해서는 '술선수범' 정신이 필수
  - 'Me first' 정신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민간 등 어느 정도 희생을 분담할 필요

## 바이오, 유전자 산업 (Panel Discussion)

**패널** 그레고리 스타크(美 UCLA의대 유전공학 교수), 서정진(셀트리온 회장), 이상엽(KAIST교수),  
카 푸(싱가폴 유전자산업 관련 의학박사)

### ■ 바이오·유전자 산업은 제약 및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기존 석유 산업을 대체하는 연료산업, 재료산업까지 적용되는 분야

### ■ 최근 제약산업,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

- '12년~'13년에 의약품 특허가 대거 만료되면서, 복제약(Bio Generic) 분야가 급부상 (예를 들면, 화이자의 경우 매출의 90%에 영향)
- R&D 투자는 증가하지만, 신약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바이오기업들이 파이낸싱에 어려움

- 대형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신흥업체는 자금 확보가 어렵고, IPO(기업공개)를 해도 Valuation이 너무 낮아 소수 회사만 IPO 가능

### ■ 제약산업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약선진국의 위기 상황이 국내 바이오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와 바이오는 요소기술의 유사성이 높고, 바이오텍의 핵심이 되는 미생물 분야는 기술적·문화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
- 특히 R&D에서 가장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실험 분야에서 한국은 획기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자동차 산업 (Panel Discussion)

**패널** 카를 한(폭스바겐 명예회장), 이현순(현대·기아차 부회장), 변정수(만도 사장), 제임스 트리스(오토모티브 산업 에디터)

### ■ 향후 자동차 산업은 안전성, 편의성, 친환경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

- 자동차 기업들이 끊임없이 IT회사를 인수하면서 산업융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일정비율(4.5%)을 R&D에 지속 투자
- 글로벌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R&D Map을 가지고, 전세계 주요지역에 R&D 센터를 세우고 다국적 기술인력을 채용할 필요

### ■ 자동차시장은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축이 이동

- 개인소득 증가로 인해 중국과 인도의 30억명이 잠재적 자동차 수요층으로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인의 자동차 보유량은 천명당 19대(한국 250대, 미국 450대)
- 2년내에 중국 자동차기업이 해외기업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역전할 수 있으나, 해외기업의 판매규모 확대는 지속될 전망

### ■ 금융위기에 높은 판매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세계 1등이 되려면 명확한 목표와 달성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

- GM이 금융가들 중심으로 주주가치 중시경영을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이 없었고, 도요타는 지나친 저비용 고효율로 고객이익을 외면
- 이현순 부회장은 현대차의 목표는 가장 큰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회사로서 고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

내용문의 : 경영연구팀 (02-6322-5109)

### Ⅲ. 녹색인증제

####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행

-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 대두
- 녹색인증제의 도입은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
- 녹색투자 자금지원 현황
  -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우대와 녹색금융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미흡
    - 녹색여신 실적 : 산은·기은·수은 3.9조원(10.2), 시중은행 1.7조원(10.2)
    - 산은 조사('09.6) :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녹색투자의 가장 큰 애로
  - 지원자금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 R&D·상용화 등 초기단계는 미미
  - 시장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유입 기대가 곤란한 것이 녹색산업의 특징
    -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 투자·회수기간이 장기
    - 외부효과 (사회적 편익 > 사적 수익)
  - 실물, 금융, 정책 측면에서도 많은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여 투자여건 미비
- 녹색인증제의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13. 공포)」 제32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동법 시행령 제19조(10.1.14. 시행)
    -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한하여 인증 실시

- 녹색기술은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기술 중 아래의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조건을 고려 (녹색성은 필수)

##### ■ 녹색기술 고려사항

기술성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경쟁국 대비 기술수준, 지적재산권 확보/회피 가능성 판단
시장성	국내외 시장규모, 성장률, 수익률,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략성	산업 및 경제구조 개선, 고용창출, 녹색성장기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녹색기술 인증대상분야는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여,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세부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선정
- 각 핵심(요소)기술별로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 규격을 제시
-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술범위를 매년 갱신

■ 녹색기술 범위

분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1. 신재생에너지	7	46	186
2. 탄소저감	3	20	95
3. 첨단수자원	9	32	130
4. 그린 IT	10	49	273
5. 그린차량	6	13	133
6. 첨단그린주택 도시	4	17	76
7. 신소재	6	22	68
8. 청정생산	3	9	105
9. 친환경 농식품	6	20	91
10. 환경보호 및 보전	7	28	106
총 계	61	256	1,263

- 녹색사업은 녹색산업 설비 기반 시설의 설치 공사, 녹색기술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선정

-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을 선정

■ 녹색사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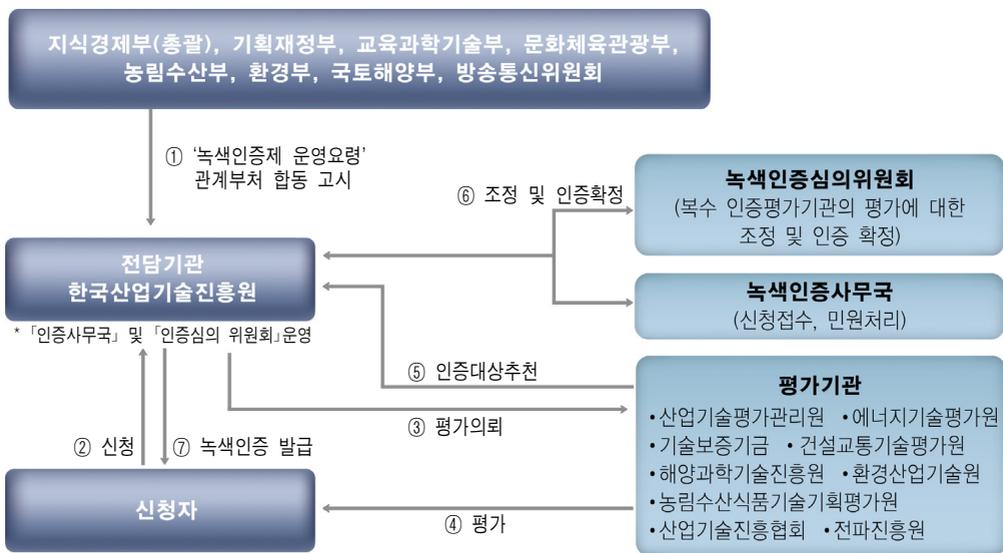
분야	중분류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12
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5
3. 첨단수자원 개발 처리 관리 사업	10
4. 그린IT 활용 보급 사업	9
5. 그린카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확산 사업	10
6. 첨단그린주택 도시 기반시설 보급 확산 사업	10
7. 청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9
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	8
9.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22
총 계	95

-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녹색인증체제를 구성**

-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
- 평가기관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녹색인증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녹색인증제 운영체제**



**녹색인증 추진현황(10.6.24)**

- 정부지원사업과 혜택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분	인증신청	서류검토	평가진행	인증확정
녹색기술인증	129	35	47	33
녹색사업인증	22	9	12	0
녹색전문기업	8	2	6	0
합계	159	46	65	33

**녹색인증을 득한 녹색기업 및 녹색사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 혜택**

○ 유망 녹색기술, 프로젝트 사업화 진행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10.2.18)**

구 분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 지원방안**

○ '10년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 확정계획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자금 지원시 융자한도 배제</li> <li>기술평가 보증료 감면(0.2%)</li> <li>민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 투자대상 포함</li> </ul>
수출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인큐베이터,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지원사업 등 신청시 가점</li> <li>수출보험료·보증료(10~20%) 감면, 보증한도 2배 우대</li> </ul>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경제 환경 등 관계부처 R&amp;D사업 참여 신청시 가점</li> <li>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등</li> </ul>

내용문의 : 녹색성장지원단 서욱 과장 (02-729-6993)

## IV. 창조적 영감에 목마른 그대, 오리진(Origin)이 되라( I )

세상에는 ‘오리진’과 그 나머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게임의 룰을 만들고 새 판을 짜는 자, 원조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 그가 바로 오리진이다. ‘나머지’는 오리진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게임의 규칙 안에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이들이다.

### High Pain & Joy - 고통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없다

■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 기쁨을 보태는 힘이 있으면 운명이 바뀐다.

- ‘High Pain & Joy’는 진심으로 고통을 이해하고 파고들어가, 속 시원하고 즐겁게 해결해주는 것이다. 아픔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 ‘08~’09년 미국에 최악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현대자동차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Assurance Program)’을 제안했다. 이른바 실직자 보상 프로그램으로, 고객이 차를 구입했는데 불황의 여파로 실직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좋은 조건으로 다시 차를 사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성능, 가격,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분명 좋은 메시지이긴 하나 불경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불안한 내일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과 심적 고통을 제대로 간파해 파고들었고, 그 결과 경쟁사들이 고전하고 있을 때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40%의 독보적인 매출 신장세를 올릴 수 있었다.
  - 남이 보지 못한 아픔을 보고, 남이 주지 못한 기쁨을 주면 그것이 오리진이다.

- ‘09년 일본의 히트상품 중에는 롯데 ‘Fits’라는 껌이 있다. 롯데는 일본 껌 시장의 매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젊은층이 금방 딱딱해지고 턱이 피곤해지는 껌의 느낌을 불쾌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롯데는 즉시 오랜 시간을 씹어도 말랑말랑 부드러운 새로운 껌 베이스를 개발했다. 나아가 젊은 취향에 맞춘 4가지 향,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 가볍게 톡톡 잡아 뺄 수 있는 편리한 개별 포장 등의 장점을 더했다. 그 결과 Fits는 3주 동안 2,000만개가 팔리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롯데는 딱딱해진 껌을 씹으며 느끼는 고객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주었다. 또 아픔의 치유를 넘어 향기, 아름다움, 재미라는 3가지 ‘기쁨’을 더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 High Mix - 뒤집고 섞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 창조를 가능케 하는 원천인 'High Mix'는 누구도 붙이지 못한 대상들을 교배시키고 예상을 뛰어넘는 쇼크를 주는 것이다.
  - '91년,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인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불어 닥쳤다. 막대한 피해로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소실되었고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동안 한 농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한 개씩 낱개 포장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붙게 해주는 '합격 사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일반 사과보다 10배나 비싼 1만원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합격 사과는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렸고, 그 해 일본의 대표적인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데카르트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tech + art)을 뜻하는 신조어로, 쉽게 말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니(Sony)라는 절대강자가 버티고 있던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등을 하게 된 계기는 '06년 출시한 '보르도 TV'였다. 제품 개발 당시 삼성전자는 직사각형 일변도를 과감히 탈피해 외관을 V자로 파고, 여기에 받침대를 붙여 '와인잔' 컨셉을 완성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 보르도라는 이름을 붙여 컨셉을 강화한 뒤 시장에 선보였다. 보르도 TV는 최단기간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데 이어 출시 첫 해에 300만대가 팔려나갔다.

소몰리에들조차 이름을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와인이라는 세계를 끌어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와인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플랫폼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면서 실로 엄청난 소득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경영자에게 필요한 아이디어의 80%는 경영 테두리 밖에서 온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창조의 씨앗은 심중팔구 우리가 모르는 엉뚱한 곳에 묻혀 있다. 그러니 간절하게 '나다운 것(Originality)'을 찾고 싶다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것과 부딪침을 두려워 말라. 창조는 곧 몰입과 융합을 통해 '오리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 본 내용은 강신장의 「오리진이 되라」에서 발췌하였으며,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권나는 연구원 (02-729-6897)

## V. 다시 배우보는 잇솔질법

### 유치원에서 배웠던 바로 그 잇솔질 : 제대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는 유치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잇솔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잇솔질은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있으며, 또다시 잇솔질을 배우고자 할까요?

교정환자들이 장치를 붙이고 난 후에 꼭 배우는 것이 잇솔질법 교육(TBI: Tooth Brushing Instruction)입니다. 치아에 새로운 장치를 붙이고 나면, 모두들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게 되지만, 교정장치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야말로 TBI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치과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20년 가까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닦다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자신있는 분들도 한번쯤 교육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기초입문!

3-3-3 법칙! 기억하시나요?

하루 3번! 밥먹고 3분 안에! 3분씩!

이것이 바로 333법칙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사실 어떤 잇솔질법을 사용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333법칙과 함께 나에게 딱맞는 맞춤형 잇솔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잇솔질 법은 회전법(Rolling Method), 바스법(Bass Method), 차터스법(Charter's Method), 폰즈법(Fones Method), 와타나베법(Watanabe's Method)입니다. 모두 생소한 용어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 회전법(Rolling Method)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잊어버리시고요. 회전법은 말 그대로, 칫솔을 잇몸에서 치아쪽으로 회전을 주어가면서 닦아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잇몸이 좀 나쁘다고 생각되거나, 이 닦을 때마다 피가 난다거나, 이가 시리다거나 한다면

회전법으로도 이가 시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바스법(Bass Method)으로 잇솔질을 하시길 권합니다. 바스법은 잇솔모의 반을 잇몸쪽에 넣고 작은 진동을 주면서 이를 닦아주는 것으로 잇몸염증이 있으신 경우에 특히 좋습니다. 40대를 넘어선 성인들에게는 회전법보다는 바스법을 더 권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교정장치를 하고 계신다면, 그 부위는 차터스법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차터스법은 이미 교정장치를 붙이시면서 교육을 받으셨겠지요?

애기들은 무조건 닦는 것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냥 이를 다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를 닦는 방법으로, 폰즈법(Fones Method)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이를 닦게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어렵겠지만 일단 이 닦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이런 폰즈법이 나중에 회전법으로 가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잇몸질환 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 잇솔질법! 다른말로 와타나베 법(Watanabe's Metho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아셨겠지만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님이 주장한 잇솔질 법입니다. 효과는 뛰어나지만, 두 줄모의 칫솔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며, 아주 약한 힘으로 오랜 시간동안 잇솔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가의 치료 및 잇솔질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뻔 했습니다.

어떤 잇솔질 방법이든,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진리처럼 말입니다.



**공인수** (kong730@hanmail.net)  
치아교정/치아미백 클리닉 원장

서울대학교 치의학 박사  
교정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  
대한치교교정학회 정회원  
대한심속교정학회 정회원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서울임상교정연구회 학술이사  
Fellow of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내용문의 : 공치과 공인수 원장 (02-3476-2875), 이민재 선임연구원 (02-729-7374)

## 경제지표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4/4분기	1/4분기	3월	4월	5월
성장	GDP(%)	2.3	0.2	6.0	8.1	7.2('10년 2/4분기)		
	(전기대비)			0.2	2.1	1.5('10년 2/4분기)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0	97.1	96.8	100.0	100.6	101.1	101.4
	선행지수전년동월비(%)	1.1	5.0	11.4	10.4	9.7	8.6	8.0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3.4	-0.8	16.2	25.7	22.5	20.1	21.5
	생산자제품출하(%)	2.6	-1.7	12.8	21.7	19.5	17.6	18.9
	생산자제품재고(%)	7.1	-8.0	-8.0	6.6	6.6	10.9	14.8
	제조업가동률(%)	77.5	74.6	78.4	80.5	82.4	82.2	82.8
	제조업BS(업황)	74	75	90	95	99	103	103(105)
소비	소비재판매(%)	1.1	2.6	10.7	9.9	9.9	7.3	3.6
	소비자심리지수			114	111	110	110	111(112)
투자	설비투자추계(%)	-3.0	-8.0	10.2	24.3	34.0	25.5	22.3
	국내기계수주(%)	-13.8	-11.8	20.0	10.5	22.9	25.1	56.7
	건설기성액(%)	4.9	1.7	5.0	2.0	5.5	-5.7	0.5
	건설수주액(%)	-7.6	3.0	11.6	-6.9	-25.3	-14.6	16.8
고용	실업률(%)	3.2	3.6	3.3	4.7	4.1	3.8	3.2(3.5)
	취업자증가율(%)	0.6	-0.3	-0.0	0.6	1.2	1.7	2.5(1.3)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3.6	2.0	3.7	5.7	5.5	3.7	3.8
물가	소비자물가(%)	4.7	2.8	2.4	2.7	2.3	2.6	2.7(2.6)
	(전기비)			0.2	1.0	0.3	0.5	0.1(-0.2)
	생산자물가(%)	8.6	-0.2	-0.5	2.6	2.6	3.2	4.6(4.6)
	(전기비)			-0.1	1.5	0.6	0.8	0.5(-0.3)
	전국주택매매(%)	4.0	0.2	0.7	2.7	3.2	3.3	3.2(3.0)
	서울아파트매매(%)	5.4	-0.5	1.2	4.0	4.3	3.8	3.2(2.1)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05.6	13.4	18.0	14.2	38.3
	수출증가율(%)	13.6	-13.9	11.7	36.2	34.2	29.8	40.3(30.1)
	수입증가율(%)	22.0	-25.8	1.4	37.2	48.4	42.6	49.1(38.2)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는 '10.6월 수치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4/4분기	1/4분기	4월	5월	6월	
중소 제조업	산업생산(전체,%)	-1.2	-1.5	9.2	20.8	18.4	18.5	15.5
	(중화학공업,%)	-1.7	-2.1	10.7	24.3	19.9	19.5	15.5
	(경공업,%)	0.0	-0.2	5.6	13.2	15.0	16.2	15.1
	설비기동률(전체,%)	69.7	68.9	72.2	71.2	73.8	73.1	74.0
	(소기업,%)	69.1	67.7	70.7	69.7	72.4	72.0	72.7
	(영세기업,%)	64.1	62.6	65.6	63.8	67.2	67.6	67.6
	(중기업,%)	75.5	74.5	77.8	76.9	79.1	77.5	78.9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3.9	15.4	17.6	15.4	17.0	17.3	18.0
	(소기업,%)	11.8	11.9	13.6	11.9	13.9	13.6	13.8
	(영세기업,%)	7.5	7.5	8.3	6.8	7.6	8.4	9.7
	(중기업,%)	28.8	29.7	33.5	29.0	29.5	32.5	34.3
	자금사정곤란업체(전체,%)	42.4	36.2	31.1	31.2	28.3	29.3	26.9
	(소기업,%)	44.4	39.2	33.5	33.8	30.4	31.6	28.9
	(영세기업,%)	48.5	41.3	36.2	37.5	31.8	34.5	31.8
	(중기업,%)	28.1	24.2	21.5	20.8	20.1	20.1	19.1
	중소제조업고용(증가,%)	9.8	12.0	13.4	12.3	13.3	12.0	13.1
	(감소,%)	12.9	12.9	10.6	10.9	11.4	12.0	11.6
	(증감차,%p)	-3.1	-0.9	2.7	1.4	1.9	0.0	1.5
	BSI 실적(기준=100)	64	70	96	89	2/4분기(100)		
	전망(기준=100)	103	76	114	102	3/4분기(97)		
어음부도율(%)	0.03	0.03	0.03	0.03	0.03	0.03	0.04	
신설법인(월평균, 개)	4,238	4,736	4,884	4,885	5,508	4,565	5,448	
부도법인(월평균, 개)	157	114	96	94	91	96	93	

주 :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4/4분기	1/4분기	4월	5월	6월
자금시장*	총수신(은행)	8.7	4.6	-13.6	16.4	-3.4	18.6	5.4
	(자산운용사)	5.3	-2.3	-14.0	10.7	-3.0	4.2	-9.5
	가계대출	2.1	1.7	4.5	0.7	1.7	4.4	2.5
	(주택담보대출)	1.5	2.1	5.0	3.0	1.8	1.7	2.5
	기업대출	6.5	1.2	-7.4	8.1	3.5	2.1	-1.9
	(대기업)	2.5	-0.4	-4.2	4.9	2.8	0.3	-0.4
	(중소기업)	4.0	1.6	-3.2	3.2	0.7	1.9	-1.6
금리	콜금리(%)	4.78	1.98	2.00	2.00	2.00	2.01	2.00
	국고채3년(%)	5.27	4.04	4.34	4.13	3.77	3.70	3.75
	회사채3년(AA-, %)	7.02	5.81	5.46	5.24	4.69	4.48	4.65
환율	원/달러(₩)	1,103	1,276	1,168	1,144	1,117	1,163	1,212
	엔/달러(¥)	103.3	93.6	91.2	90.7	93.5	91.9	90.8
	원/100엔(₩)	1,077	1,363	1,302	1,261	1,195	1,265	1,334
	달러/유로(\$)	1.471	1.395	1.429	1.384	1.343	1.254	1.221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	3.64	3.25	3.45	3.48	3.82	3.41	3.19
	일본국채10년(%)	1.49	1.35	1.32	1.34	1.36	1.28	1.21
유가	WTI(\$/bbl)	99.8	62.1	76.1	78.8	84.6	74.1	75.4
	Brent(\$/bbl)	98.3	62.7	75.5	76.2	85.8	77.1	75.6
	Dubai(\$/bbl)	94.3	61.9	75.4	76.0	83.4	76.8	74.1
원자재	금(\$/온스)	872	975	1,100	1,110	1,152	1,205	1,236
	전기동(\$/톤)	6,884	5,185	6,670	7,266	7,781	6,874	6,530
	알루미늄(\$/톤)	2,620	1,702	2,035	2,194	2,346	2,070	1,961

주 : 기간중 평균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증감액, 연간·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 증감액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www.ibk.co.kr](http://www.ibk.co.kr) TEL 02-6322-5111 FAX 02-729-6605